

꽃, 온천, 마을이 있는 웰빙 여행 ‘아산 둘러보기’





수도권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30분이면 갈 수 있는 아산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다. 동쪽으로 천안시와 서쪽으로는 당진군과 예산군, 남쪽으로는 공주시, 북쪽으로는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 평택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길손은 첫 순례지로 외암리민속마을(www.oeammaul.co.kr)을 찾아간다. 옛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이 마을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부터 부락이 형성되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충청도 고유의 격식과 고택, 초가, 돌담, 정원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개발이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이제 전통 공간은 그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래도 방방곡곡에는 옛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 많이 남아 있다. 외암리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 삶을 둔 현대인들에게 진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코흘리개 시절 논두렁 밭두렁을 뛰어다니며 놀던 추억이 아슴하게 그려지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이 마을은 풍수학적으로도 뛰어난 지세(地勢)를 보여주고 있다. 마을을 둘러싼 설화산과 돌담, 생명들이 뛰노는 실개천과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디딜방아 등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 듯하



다. 안내소를 지나 마을로 들어서면 먼저 소박한 초가가 반겨준다. 집과 집을 이어주는 돌담길과 경중한 소나무는 고향 마을에 온 듯 푸근하기 이를 데 없다.

돌담은 마을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체 역할을 한다. 마을을 이루고 있는 60여 호 가운데 초가집은 50여 호. 10여 호는 기와집으로 대개 100~200년은 훌쩍 넘어 고풍스러움이 물씬하다. 집들은 거개가 가옥 주인의 관직명이나 출신 지명을 따서 참관댁, 병사댁, 감찰댁, 참봉댁, 종손댁, 송화댁, 영암댁(건재고택), 신창댁 등으로 불린다. 특히 참관댁은 조선말 참관(벼슬 이름)을 지낸 이정렬 선생의 집으로, 명문가의 전통이 고스란히 살아 있다.

이 집안에서 내려오는 연엽주(蓮葉酒)는 고종 황제가 즐겨 드시던 술이기도 하다. 연꽃잎과 참쌀, 누룩, 술잎, 감초를 넣고 빚는데 지극한 예법이 담겨 있다. 지극 정성이 없으면 제대로 된 술이 나올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밤중 자시(子時)에 그릇을 놓고 이슬을 받는다. 만세력(萬歲曆)을 보고 좋은 달과 날짜를 택일하였고 술독을 놓는 방향까지 따졌다. 술 담그는 날에는 정갈하게 목욕재계하고 작업할 때는 침이 튀지 말라고 입에다 창호지를 물고 할 정도였다. 전화(041-543-3967)로 주문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1병 1만 7000원. 외암민속마을보존회(041-544-8290)에서는 매주 일요일 체험 행사를 열고 있다. 떡매 치기, 숯대 만들기, 추사체 탁본 뜨기, 두부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체험료 5,000원을 받는다.

외암리를 방문했다면 10분 거리에 있는 맹씨행단에도 꼭 가보자. 청백리로 널리 알려진 맹사성(1360-1438)의 옛집으로, 우리 나라 살림집 가운데 원형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집으로 알려져 있다. 고택 앞에는 수령 600여 년의 은행나무 두 그루가 우뚝 서 있다. 집안에 있는 구곡정은 영의정 황희, 좌의정 맹사성, 우의정 허조 등이 국사를 논의하던 곳이라 하여 삼상당이라고도 한다. 사적으로 지정된 이 가옥은 대청이 한가운데 있고 양쪽에 방 하나씩 배치된 고려 시대의 양식으로 몽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축기법이다.

염치읍 방화산 기슭에 있는 현충사도 아산 답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은 성웅 이순신 장군이 성장하여 무과에 급제할 때까지 살던 곳이다. 현충사는 충무공이 1598년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신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으로 숙종께서 친히 내린 이름이다. 경내에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본전과 일생을 기록해 놓은 십경도, 국보 76호인 난중일기, 보물 326호인 장검 등이 전시돼 있는 유물관이 있다. 충무공이 살던 옛집, 활터 등은 역사체험 현장으로 손색이 없다.

아산시 도고면 봉농리에 문을 연 세계꽃식물원(www.goodflower.com). 아산의 또 다른 얼굴이다. 도고온천과 가까운 이 꽃식물원은 5000여 평의 온실에 세계 각 나라의 꽃 1000여 종(1000만 송이)이 알싸한 향기를 발산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실내식물원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식물원은 아산의 영농조합법인인 아름다운 정원 회원 13명과 준조합원 38명이 뜻을 모아 만들었다. 30여 년간의 꽃 재배 노하우를 이곳에 집중시킨 것이다. 처음에는 조합원들의 공동 화훼단지였지만 유리온실 일부를 전시, 판매 공간으로 만들었다.

식물원 안으로 들어가면 한겨울인데도 튤립, 수선화, 베고니아, 히아신스, 백합, 아이리스, 제라늄 등 갖가지 꽃들이 청초하면서도 도도한 자태를 맘껏 뽐낸다. 모두 18개의 온실을 갖추고 있으며 주제별로 동백관을 비롯해 구근관, 초화관, 수생관, 모형화단 전시관 등으로 나뉘어 있다. 동백관에는 블랙레이스, 누시오스 잼, 마크 알렌 등 30여 종의 동백이 오묘한 자태를 자랑한다. 초화관에는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인기를 끄는 초화나 관엽식물이 전시돼 있으며 수생관에선 워터히아신스와 부레옥잠, 물배추, 수련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온실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통나무 벤치와 음료 자판기를 놓아두었다.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된 분수연못과 대형 수반에 장미와 거베라꽃을 띄워 맴돌게 만든 일명 꽃돌도 볼 만하다.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이 꽃을 만지며 재롱을 피우는 모습이며 연인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식물원 한편에 마련된 웰빙관에서 체험 행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꽃물 염색, 손바닥 정원 만들기, 식



용 꽃 따먹어보기 등 꽃을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꽃으로 만든 꽃비빔밥(5000원), 꽃김밥(3000원), 꽃주먹밥(3000원) 등은 잃었던 입맛을 되찾게 해준다. 이곳에서는 테마별로 20여 개의 꽃 축제가 연중 열린다. 입장료는 어른 6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4000원이며 관람객에게 미니 화분을 선물로 준다.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문의 041-544-0747.

아산을 일러 웰빙도시라 일컫는데 여기에는 온천도 한 몫하고 있다. 1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온양 온천을 비롯해 도고, 아산 등 3개의 온천단지가 있다. 음봉면 신수리의 아산온천은 단지 안에 호텔, 여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그 중 아산스파비스(www.spavis.co.kr, 041-539-2080)는 바데풀, 유수탕, 가족탕 등 물놀이 시설이 잘 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온천 안에 한방 클리닉이 있어 체질에 맞는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다. 한방 클리닉을 이용하려면 건강보험증을 가져가야 한다.

아산온천에서 서해 쪽 2km 거리(5분 거리)에는 아산의 진산인 영인산이 우뚝 솟아있다. 염치읍, 영인면, 인주면 경계에 솟아 있는 영인산(해발 363m)은 가족산행 코스로 적당하다. 아산향교를 출발해 영인산수련장~거북샘~연화봉을 거쳐 깃대봉을 경유, 정상까지 오를 수 있다. 하산은 정상에서 동릉~계곡~헬기장~거북샘~남동릉~임도 사거리~남동릉 삼거리~삼투봉 갈림길 삼거리~남동릉 사거리~자연휴양림 주차장으로 내려오면 된다. 왕복 산행은 총 8km 거리이며 약 4시간 정도 걸린다. 정상이나 연화봉에 서면 서해 바다, 삼교천, 아산만 방조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아산온천단지와 아산 시가지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준다. 정상은 약 50평 정도의 평탄지로 삼각점과 작은 돌탑이 세워져 있다. 산 중턱에 있는 영인산자연휴양림은 도시인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통나무집, 삼림욕장, 눈썰매장, 방갈로,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다. 눈썰매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입장료는 어린이 3000원, 청소년·군인이 4000원, 어른 5000원이다. 통나무 콘도형 숙소인 숲 속의 집은 6평형 35,000원, 8평형 40,000원, 10평형 50,000원, 12평형 60,000원, 30평형 150,000원을 받는다. 휴양림 예약(www.younginsan.co.kr, 041-540-2479). 또한 신창면 읍내리 학성산 기슭에는 '인취사'라는 아담한 절집이 있다. 겨울 산사의 분위기를 느끼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다. 인취사 종무소(041-542-6441). 시간이 있다면 돌아오는 길에 삼교호 옆에 들 어선 함상공원에도 둘러보자. 바다 위에 떠 있는 함선 안에 들어가면 해군과 해병의 각종 복식과 각 함정의 역사 등을 자세하게 둘러볼 수 있으며 특히 선상카페에서 널찍한 창을 통해 바라보는 삼교호 방조제와 그 너머로 보이는 서해대교는 색다른 정취를 풍긴다.

글: 김 동 정 <여행작가>

☞ 여행쪽지(지역번호 041)=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C→국도39호(28km)→온양온천→국도 39호(6km)→송악 외곽도로 진입→외암리민속마을. 온양 버스터미널(또는 온양역 앞)에서 강당골행 시내버스 8회 운행(08:10~19:30) 30분 소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아산만방조제-인주(현대자동차 아산공장)-도고온천역 전방 500미터(이정표 있음)-세계꽃식물원. 경부고속도로 천안 나들목에서 빠져 21번 국도를 타고 온양을 지나 도고온천까지 가도 된다. 도고온천에서 꽃식물원까지는 3km 정도. 대중교통은 아산 시내에서 예산행 버스를 타고 덕원플라자 휴게소에서 내려 10분 정도 걷는다. 온양, 아산, 도고 온천은 아산에 접어들면 이정표가 잘 돼 있어 어려움 없이 찾아갈 수 있다. 경부고속철도를 이용할 경우 온양온천은 천안아산역에서 버스로 20분, 도고온천과 아산온천은 온양시내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20분 정도 더 가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천안C→지방도628호(23km)→음봉삼거리→아산온천→영인산자연휴양림.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C→국도39호(19km)→영인산자연휴양림. 온양온천역에서 10~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영인산행 시내버스 이용. 30분 소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C→아산만방조제→국도 34호 (현대자동차방향 5km)→623지방도(20km)→인취사.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온양 예산 방면 21번 국도-신정면 읍내리 삼거리에서 신정면 쪽으로 우회전-300여m 가다 인취사 쪽 좌회전. KTX 천안 아산역에서 21번 국도를 따라 15km가량 직진하면 현충사와 만난다. 자동차로 갈 경우 경부고속도로 천안C에서 남부 우회도로를 거쳐 21번 국도를 이용하면 된다. 온천 아산스파비스는 전철 천안 두정역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 문의(539-2080). 아산온천단지에 백운곰탕(542-8557), 온궁한방갈비(543-4777), 원조이동갈비(544-1242), 식도원(539-2090), 낙원가든(541-6866), 참이맛뼈다귀(542-2025) 등 맛집이 많다. 현충사 인근에 있는 방수마을(544-3501)은 한정식 전문점. 반찬 20여 가지에 2~3년 묵은 간장, 된장, 배추김치, 무김치 등은 독특한 맛을 낸다. 된장 한정식이 1인분에 1만원. 삼교호 주변에는 장어촌이 들어서 있다. 숯불에 석식을 얹어 구워내는 장어구이는 살살 녹는 듯한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다. 1kg(4만원)을 시키면 어른 2명이 먹기에 적당하다. 옛날돌집(533-2241), 꽃동네원조장어(533-2561) 등. 아산온천 주변에 리베라모텔(041-543-0567), 온천백악관모텔(544-7174), 스파피아온천모텔(543-0855) 등 여러 개의 모텔이 있다. 숙박료는 40,000원 안팎.